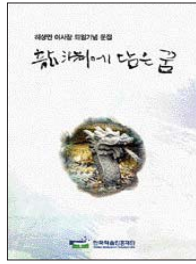


학술진흥재단, 허상만 前 이사장 퇴임 문집 발간

낮뜨거운 개인 찬양 '빈축'

재단 명의 1천부 제작... 전국 주요 기관 600부 배포

대한민국의 학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약칭 '학진')이 이사장의 개인적 치적을 찬양하는 '퇴임기념 문집'을 발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외기관과 협약체결문, 각종 행사 기념식사 및 인사말, 인터뷰, 기고문, 서신 등도 사진과 함께 실고 있다.

학진은 지난해 9월 퇴임한 허상만 전 이사장의 퇴임기념 문집 '용연에 담은 꿈-허상만 이사장 퇴임기념 문집' <사진> 1천 부를 최근 발간, 600 부를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학진에는 설립 이래 12명의 이사장이 거쳐갔지만 재단 이름으로 기념문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단체의 장이 퇴임하거나 저명 학자가 은퇴할 때 제자나 지인들이 학문적 성과나 논문, 작품 등을 모아 헌정하는 기념 논총(論叢)·논문집을 발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반처럼 일반문집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크라온관 560쪽으로 발간된 이 문집은 허 전 이사장의 취임 전 직무수행 계획서, 재임 중 주요 업적에 대한 보도자료 등 개인적 치적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문집의 2부에는 강간담, 조정래, 최정도, 조용현씨 등 지인들이 허 전 이사장과의 친분과 인연에 대해 쓴 회고 글과 재단 임직원들이 허 전 이사장을 '칭송'한 글 40여 편을 담았다. C교수는 '허상만 이사장의 사주풀이'란 글에서 "....태어난 시(時)가 좋아 말년에 관운이 좋은 것이다...돈도 있고 벼슬도 있고 학벌도 있는 운명이다"라고 썼으며 K씨는 '다정다감 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사장님'이란 글에서 "최근 몇년간 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 (허 전 이사장이) 그때 주신 모시팬티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었다"는 글을 실었다. 학진 측은 문집 제작과 관련 "이사장 퇴임을 기념해 전 사무총장이 사

비를 털어 발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재단은 이름만 걸었을 뿐 무관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 치적을 담은 문집에 발행처를 학술진흥재단으로 해 출판한 것은 학술교류와 협력, 연구 정보관리 등 학술 활동 지원이라는 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명을 요구한 모 대학교수는 "개인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꾸며진데다 책으로 발간할 가치가 없는 축·고사까지 담고 있어 순수한 퇴임기념 문집으로 볼 수 없다"면서 "왜 재단이 앞장 서서 이 같은 책을 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수는 "허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학술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인사치레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집 출간을 주관한 학진 전 사무총장 우재창 목포대 교수는 "재단이 오는 6월 한국연구재단으로 이름을 바꿀 새롭게 출발하게됨에 따라 지난 28년의 발자취를 정리, 홍보하고 전 이사장의 성과를 기리는 차원에서 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함평 문장 장터 '기미 4·8 독립만세 재현'

8일 함평군 해변면 문장 장터에서 열린 '기미 4·8 독립만세 재현행사' 참가자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4·8 독립만세 운동'은 1919년 4월 8일 함평 문장 장터에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으로, 당시 지역의 애국지사 24인이 붙잡혀 모진 고문과 혹독한 옥고를 치렀으며, 훗날 수많은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광학원 교장 징계 마감 시한 넘겨

15일 재논의기로

청에 징계 마감 시한인 9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따르면 오는 15일 개 이사회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함께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일단 정광학원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뒤 차후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광학원의 징계 처리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과 학급·학과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 2월 시 교육청 감사 결과 채용된 16명 가운데 6명이 부당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지난달 9일 1개월 이내 정 교장 등 4명을 해임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9분 해질 19시 00분 달돋이 18시 49분 달질 05시 29분

벌써 초여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9/26°C
목포	맑음	8/21°C
여수	맑음	11/21°C
완도	맑음	10/24°C
구례	맑음	5/26°C
해남	맑음	4/24°C
장흥	맑음	4/26°C
고흥	맑음	6/24°C
순천	맑음	11/26°C
영광	맑음	6/21°C
진도	맑음	7/23°C
전주	맑음	7/25°C
남원	맑음	4/25°C
옥산도	맑음	9/18°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목포 01:49	07:0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여수 08:46	02:3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날씨						
최저/최고	10/26	10/26	11/23	11/22	12/23	11/22

車 면허 학과시험 광주서도 치른다

5월 12일부터

다음달부터 광주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2일부터 도로교통안전공단 광주지부 강의실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학과시험을 보려는 응시자들은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했다. 출장 학과시험은 다음달엔 셋째 주 화요일(12일)에 두 차례, 6월부턴 첫째와 셋째 주 화요일에 두 차례씩 실시된다. 시험공고는 시험일시 20일 전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며, 응시 접수는 교통안전교육 수료 및 신체검사 후 광주지역 5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던 된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가톨릭·개신교 교단 '부활절 메시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양대 명절인 부활절(12일)을 맞아 가톨릭과 개신교 등 각 교단이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역설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8일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교우들과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2천여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역사(歷史)만이 아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는 걸 정적인 역사(역사)"라고 말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강상원 목사는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경제 침체를 뚫고 다시 일어선다"고 강조했다. 교단별로 예배와 미사도 거행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9일 오전 11시 일동 주교좌 대성당에서 성유축성 미사, 12일에는 북동주교좌 성당에서 예수부활대축일 미사를 갖는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12일 오전 5시 광주중앙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교수들 천막농성

"구 재단 복귀 저지" 총장·교무위원 포함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 이사 파견 움직임과 구 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8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해 모든 교수가 이날부터 무기

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대 최고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교수가 돌아가며 천막농성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처

(실)장, 산학협력단장,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중앙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병원장, 치과병원장 등 38명으로 구성된 학내 최고심의기구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 학기술부가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 경영진의 복귀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연구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과부가 우리 대학을 구 경영진에게 넘겨주려는 계획을 준연히 규탄하며, 사생결단의 일념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최고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는 8일 오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 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전체 교수농성돌입을 결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용: 병용후의 해독,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로 인해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질 및 경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허혈, 뇌경색, 수족저림,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